

# 華山仙界錄 研究(一)

金 鎭 世\*

## I. 序

華山仙界錄은 이른바 樂善齋本 小說이다. 이것은 한글 筆寫本으로, 80권 80책의 龐大한 作品이다. 우리가 樂善齋本을 대하면서 늘 아쉬워 하듯이 이 作品 또한 아쉬움을 준다. 創作年代와 作者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現傳하는 作品의 筆寫年代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II. 連作問題

朝鮮朝 後期에 이르러 우리의 한글소설에는 이른바 連作形態의 作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다.<sup>1)</sup> 그런데 이 작품도 그러한 類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다. 泉水石 卷 10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조부인이 년하여 이너를 심하고 소종 십년 춘 삼월의 성남하니 용외 청슈하고 괴골이 비범하더라 명을 복성이라 하여 동창공주 계스물 닛고져 하더라.

그런데 華山仙界錄 卷一에

위공의 본사적은 본던 턴슈셔의 히비이 기록한 고로 죽던의논 위헌의 스적만 기록하고 다른 스연은 빈다불기 하다.

라는 말이 있고, 또

\* 국어국문학과 교수.

1) 拙稿, 玄氏兩熊雙麟記研究, 서울大學校 교양과정부 논문집 제 4 집, p.97.

서정공 복성의 본성은 위시니 당 명동황야의 〇돌이요 조황후의 쇼설이라 명  
 풍이 비록 제인의 축저호물 먼치 못하여 턴지 되시나 왕실이 능히 오리지 못  
 홀 줄 알고 만민의 도단호물 어엿비 녀여 검덕인화호물 힘써 정소물 다스려 세  
 상을 경안케 하고 미셔의 분향호여 진인이나 만민의 부모 되기를 특호며 적조  
 복성을 위시톨 삼〇 화귀로 도라보너키 정공 복성이 부인 설시로 더부러 변화  
 세물을 좃지 아니하고 동묘를 밧드려 제소물 절치 아니려 홀서 꿈이 스릅시오  
 미 맑고 도호며 단정호여 관후딩널호며 풍채 기질이 진토의 탈출호지라 화귀  
 의 집을 일울서 화산 〇릭 청운동이란 동뵈 잇스니……이곳의 일과 광하를 계  
 오니……. (傍點筆者)

라는 말이 있어서 이 華山仙界錄은 本傳 泉水石의 續篇임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또 이 作品 卷 21에는

남송황제 도광윤의 턴하 었든 턴후 소력이 남송연의의 세세히 기록한 고로  
 초년의 지리호여 썸하다.

라는 記錄이 있어서 도광윤이 南宋의 皇帝가 되던 과정을 南宋演義에서  
 찾아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보면 이 華山仙界錄은 泉水石의 續篇이고  
 이것은 다시 殘唐五代演義와 南宋演義로 이어지는 連作小說임을 알겠다.

### Ⅲ. 梗 概

서정공 복성의 本姓은 위씨다. 그는 당나라 明宗皇帝와 조황후 사이  
 에서 태어났지만 繁華 世物을 찾지 않고 華山에 묻혀 살고 있었다. 부  
 인 설씨가 晩年에 세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현)는 만이와 둘째에  
 지나는 자질이 있었다. 진처사는 일찌기 만이인 경을 보고는 地上神仙  
 이 되겠다 했고, 둘째인 희는 道緣이 있기에 자기의 道弟를 삼고 싶다  
 고 한 바 있었는데 막내인 현을 보고는 入相出將할 자질이 있으니 齊世  
 安民하는 도량과 동운뇌우의 術法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조국공 府中の 조빈이 華山의 위공을 찾아왔다. 모친의 命에 따라 修

學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黃金矢石 사이에서 백만군졸을 달려 湯火 가운데에서 生靈을 건지며 華夷 사이를 진복함이 원이라고 했다. 그의 자질을 확신하게 된 위공은 조빈을 진처사에게 보내어 자기 아들과 함께 修學케 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모든 면에 뛰어났으나 말타기와 칼쓰는 법이 미숙하기에 진처사는 그에게 말과 槍劍을 구해오도록 했다. 이것을 구하러 위공 집에 간 조빈은 그곳에서 부인이 주는 술에 취하여 그만 난간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저녁 때가 되어 침실로 돌아가던 규원소저가 어둠을 가리지 못하여 그의 손을 밟고 말았다. 그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크게 하품을 하였는데 그녀는 그것이 범이 나타난 것으로 착각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몸 위에 엎어져 실신하고 말았다.

마침 趙公子(광윤)가 조생을 찾아와 오랜동안 헤어져 있던 회포를 풀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위소저의 범 소동이 조빈과의 인연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위공은 年前에 진처사에게서 들은 바를 생각하고 그들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간짓날, 식공자와 정공자는 선혜공주의 두 딸의 용모가 아름답을 뿐 아니라 마음씨도 곱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動하여 조생을 통해서 請婚하게 되었다. 위공은 이들에게 천자의 기상이 있고 또 亡妹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기에 식공자는 월영과, 정공자는 월희와 각각 成婚케 했다.

唐朝 太學士 이한성은 옥수라는 영특하고 뛰어난 딸을 두었다. 後娶인 탕씨가 또 두 딸을 낳았지만 옥수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학사가 죽자 탕씨는 그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옥수를 출가시키려 했다. 동생인 탕관은 누님의 사주를 받고 富商 도원외에게서 五百金을 받은 뒤에 이소저가 家君에게 享祀하는 때를 타서 그녀를 겁탈토록 꾸몄다. 이러한 密計를 엿들은 탕관의 딸 교란은 그 내막을 이소저에게 알렸다. 옥수가 교란에게 자기 대신 그곳에 가면 어떻게느냐고 제의하자 교란이

흔쾌히 승낙하여 도원외는 교란을 배에 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일이 그릇되자 탕씨는 다시 조카 탕춘에게 옥수를 주려 하자 탕춘은 또 소승상의 아들 소금오에게 美女를 주선했다. 주기로 하고 五百金을 얻었다. 탕춘과 소금오가 무뢰배를 부려서 이소저를 겁탈하였으나 그들이 데려간 것은 이 소저의 행세를 하던 侍女 칠애였다.

世宗皇帝가 즉위한 후 도광윤이 西京留守가 되었다. 그는 위현에게 이소저의 뛰어난 것을 말하며 그녀와 親事할 것을 권하였다. 그는 이소저의 오빠인 이장군에게 글을 보내는 한편 석수신에게도 글을 붙여 이 일을 돕도록 부탁했다.

이소저는 계모의 흉계를 벗어나려고 작은 배로 水門을 빠져나와 위부의 동창궁에서 숨어지내다가 男裝으로 모습을 바꾸어 그곳을 떠났다. 도중에 도적을 만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村舍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글 읽는 소리와 통소 소리를 듣고 그곳에 笥수가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男裝을 하였으며 여자임을 말하고 동석하여 음률을 즐기고 해설을 덧붙이며 통성명을 하게 되었다. 뉴소저는 後漢 고조의 공주로 나라가 망하자 정처사를 따라 이곳에 와서 지내게 되었는데 정소저와는 內外從間이었다. 정소저는 이소저에게 이장군의 휘하에 정은이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만일 찾게 되면 알려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소저는 바로 그곳을 떠나려 하였으나 뉴, 정 두 소저가 간곡히 만류하는 바람에 며칠 더 머물게 되었다.

위현은 趙匡胤의 글을 가지고 京師에 가서 이한승을 만났고 정은, 석수신 등과도 만났다. 趙公의 글을 본 이장군은 즉석에서 그 親事를 快許하였다. 그때 정은은 자기의 從姪女가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위현에게 자기 질녀도 함께 거두어 주기를 청하였다. 위현은 그것을 극구 사양하였으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정공에게 동조하며 위현은 그렇게 할 것을 수락하였다. 親事를 정한 이들은 말미를 얻어 그녀들이 있는 華陰縣으로 함께 떠났다.

美女를 뽑아올리라는 勅令이 있자 縣尉는 美女를 찾아 나섰다. 이들 三小姐는 몸을 숨겼으나 구과의 딸 은낭이 정소저 府中에 美人 두 명이 있음을 발설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侍女를 대신 보내고 나가지 않았으나 은낭이 재차 告變하는 바람에 縣尉는 그 집을 수색토록 했다. 三小姐가 집을 떠나 石室에 숨어 지내는데 한 女童이 그들을 불러내었다.

이들은 楊太眞의 後族이라는 眞人을 만났다. 그는 이소저를 보고는 천지간 수출한 정맥이나 子宮이 寂寂하고 壽限이 짧음이 안타깝다 하고는 책 한 권을 주었다. 유소저에게는 壽限은 짧겠으나 子孫은 많겠다 하며 책 한 권을 주었고, 정소저에게는 만복을 길이 한 사람이로다 하며 책 두 권을 주었다. 이소저의 책은 運籌帷幄 決勝千里하는 지략과 日月星辰 陰陽乾坤의 조화를 말한 것이고 유소저의 책은 律呂의 성음과 만물의 소리를 빌어 만국의 음률을 의논한 것이었다. 정소저의 책 상권은 文武周公 鬼谷 孫臏 郭樸 淳風의 미묘한 理를 해석하고 易理를 의논한 것이고 하권은 華陀 扁鵲의 理를 논하며 百草를 시험하는 醫家書였다. 그들은 밤세워 그 이치들을 말하고 天文을 강론하였다. 날이 밝자 眞人は 정소저에게 丸藥과 칼, 그리고 寶劍 등을 주었다. 丸藥은 훗날 家夫가 임군에게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쓰도록 당부했고 거울은 사정을 분별하고 칼은 나라 도적과 요사를 버히나니 그것을 자손에게 전하라고 일렀다. 三小姐는 眞人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으나 그는 天台山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이들은 수일 후 이장군과 정금오를 만나게 되었다. 서로 회포를 나눈 다음 이장군은 三小姐에게 終身大事를 물었다. 그녀들은 부모가 없으니 누가 그런 중대한 일을 주장하겠느냐고 하며 오히려 이장군에게 의지하려 했다. 이장군은 西京留守 趙公의 말을 하며 위공자에게 聘禮했음을 말했다. 그들이 그 뜻을 수락하자 곧 成禮를 했고 위생과 三小姐의 결혼생활은 순조로웠다.

위현이 三小姐와 자리를 같이 하여 그 조상들이 겪은 화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趙公이 찾아왔다. 그는 上의 出師令을 받고 위현을 참모로

친거했노라고 했다. 위현은 자기가 구상유취의 書生이라고 사양하였으나 결국 御史中丞 諫議大夫 參謀使가 되어 출정하게 되었다. 도광왕이 大捷하고 돌아오자 上이 그에게 兵權을 맡겼지만 그는 모친의 병환을 들어 사직하였다. 위현이 문영각 학사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兩老의 倚間之望을 말하였으나 上은 그에게 廣廈 백여간과 粉黛 수백을 주고 머물게 했다.

周太祖 徽時에 태어난 숙정공주는 조실부모하고 산적에게 恩養되었다. 그녀는 절색이었을 뿐 아니라 무예에도 뛰어났다. 평소 자기 마음에 차는 丈夫가 없음을 한탄하던 그녀가 위현을 보고는 친하에 하나 밖에 없는 짝이라면서 그 뜻을 태후에게 전하였다. 태후도 기뻐하였으나 上은 난색을 표명하였다. 위현은 室家가 있는 重臣이요 도덕군자라서 富貴聲色으로 마음을 바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공주가 끝내 뜻을 꺾지 않음에 上은 하는 수 없이 위현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다. 위현은 禮法은 風化의 宗이요 부부는 인륜의 大事라는 사리를 내세워 上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趙公, 정공 등도 모두 上의 청혼을 반대하였다.

上이 공주의 혼사로 고민하고 있음을 본 신주절도사 한통은 공주를 위현에게 下嫁케 한다고 속이고는 자기의 아들과 成婚시킬 꾀를 부렸다. 上도 그것을 묵인하려 하였으나 내막을 알게 된 공주는 먼저 한통을 죽이려 하였다. 그녀는 婢子의 계교를 받아 그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위현이 출정하기 전날의 賜宴에서 공주는 환관에게 賄賂하여 술에 약을 타게 한 후 만취한 위현과 동침하였다. 술에서 깬 위현은 궁중에 狂據無倫한 계집이 있어 자기 침실을 더럽혔으니 그 계집을 처벌해 줄 것을 탄원했다. 그는 몸가짐을 제대로 못해 그같은 지경에 빠진 자가 將卒의 스생이 될 수는 없으니 印을 앗아 故郷으로 내칠 것을 상소하였다. 태후가 공주와 위현을 成婚하도록 간청하매 上은 위현에게 人倫의 죄인됨을 면케 해달라고 하였다. 위현은 부모의 뜻을 빙자해 華山으로

떠났다.

華山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위현은 신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後  
 翬 때 절도사 신경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고 生途가 없어 賤役이 되었다  
 고 했다. 위현은 그를 贖良하고 진선생에게서 검술을 배우도록 했다.

공주는 위현과의 吉期가 가까워지자 위현의 三婦人을 없애고자 했다.  
 그녀는 자객을 부렸으나 신생이 그곳을 지켰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  
 했다.

上이 위태공에게 공주 下嫁함을 말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不悅하였으  
 나 上命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京師로 돌아오던 중도에서 위현은 사람  
 의 비명을 듣게 되었다. 마송이란 자가 몰락한 선비인 化생을 꾀로 유  
 인하고 그 여동생을 겁탈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마송은 不人하여 美色  
 이 있으면 盤蹊曲徑으로 겁탈하고 害人殺生하는 무뢰한이었다. 위현은  
 그자를 다스리고 化생과 그의 아내 그리고 누이동생을 구하여 함께 상  
 경했다.

위현은 공주와 成婚했다. 그는 결혼 初夜에 신방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조부인의 권유를 받고 公主宮에 들어갔다. 공주의 얼굴이 善終  
 之相이 아님을 본 그는 그곳을 뛰쳐 나오고 말았다.

先是에 왕정빈, 석수신 등이 西蜀을 정복하려 했으나 반년이 넘도록  
 汗고울도 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 죄를 빌고 將良을 보내 주기를 원  
 했다. 이때 위현이 그곳에 가기를 自願하였다. 그는 싹양과 화진을 모  
 두 불렀다.

공주는 成婚 후 駙馬를 눈물로 기다리다가 西蜀으로 出征한다는 소식  
 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지난 날 자기의 出師 경험을 내세워 駙馬를 마  
 르고자 했다. 그러나 위현은 그것을 용납치 않고 서간을 갖고 간 사람  
 을 笞杖으로 다스려 내쫓았다. 화가 난 공주가 다른 계교를 꾸미려던  
 차에 운향산의 요도가 왔다. 요도가 이, 유, 정 三婦人을 害하겠노라고  
 말하며 공주는 그에게 重寶를 주고 후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行計 도중

잡히게 되었고 신앙 등은 운향산의 요도굴까지 탕정하고 말았다.

위현이 출정하여 對敵하였으나 적세가 강하여 시일을 천연하고 있었다. 그때 신앙 화진 두 사람이 그곳에 당도하여 적장 수십명과 군졸을 버리고 敵主 장만재를 생포하였다. 이들은 그곳 성을 열고 곡식을 나누어 주며 백성을 撫恤하고 곧 捷報를 上表하였다.

요도에게서 소식이 없자 공주는 평경을 보내었다. 일이 실패하였음을 안 공주는 낙담실색하고 다른 계교를 꾸미기로 하였다. 신년 인사차 입궐한 공주에게 상은 婦德을 닦아 駢馬가 回心하기를 기다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공주는 正月 上元日을 거사일로 정하고 흑룡산 도적으로 하여금 衝殺하도록 했다. 공주는 男裝을 하고 숨어서 그 현장을 엿보던 차, 三婦人이 禍를 피하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공주궁으로 돌아왔다.

한편 三婦人은 화초장 장사가 온듯이 꾸며 그 장 속에 숨어서 빠져나와 천진산 정부에 안둔하게 되었다. 얼마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春三月 旬間에 그들이 華山에 이르러 現舅姑하자 위부에서는 三婦人의 뛰어난을 치하해 마지 않았다. 그들이 이곳에 온 지 오래지 않아 이, 유, 정 등은 차례로 生男하였다. 기쁨이 가득하던 차에 위상서의 승진보가 이르고 말미를 얻어 곧 현알할 것이라 하며 위부의 환희는 한층 더하게 되었다.

京師에 돌아온 위상서는 이부상서 겸 홍문관 태학사 무양후에 封해졌고 신앙과 화진은 화주자사, 동편지부에 각각 임명되었다.

上과 황후가 三婦人의 죽음을 몹시 서러워 하매 위상서는 그녀들이 죽지 않았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사실대로 말하니 그들은 기뻐하였다. 위상서는 조부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화주로 떠났다. 동평地界에서 화지부는 동평부에 부임하기 위해 그들과 헤어졌고 화주에서는 신자사가 그곳에 도입하기 위해 위상서와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위상서는 부모 형제들과 만나 회포를 푸는 한편 三妻를

만나고 三子도 보게 되었다. 그가 돌아오자 위노공은 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만이를 인창이라 하고 지차를 응창, 세체를 현창이라 했다. 위상서가 황제에게서 하사받은 서장과 팔쇠 등, 세 가지를 조카들에게 주려고 하니 노공은 新生孫이 세 아이이니 그들에게 하나씩 주라고 했다. 위상서는 上이 위급하다는 전갈을 듣고 곧 京師로 떠났다. 上은 도공과 위공에게 어린 진왕을 부탁하고는 승하하였다.

태자인 宗訓이 즉위한 뒤로 진왕을 싹하러 하매 위상서가 그를 보호하려 하였으나 태후가 방해하였다. 한상궁이 진왕에게 젓을 먹이는 척하면서 독을 먹이자 진왕은 바로 거꾸러지고 말았다. 그때 한 神將이 나타나 어린 진왕의 시체를 가지고 달아났다. 이 일이 있은 후 태후는 진왕이 위급하다면서 위상서를 宮中으로 불렀다.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위상서가 내전에 들기를 꺼리고 외전에 있을 때에 上의 命이라면서 一壺酒와 몇 접시의 소찬이 보내졌다. 위공이 그것을 먹지 않고 있자 上이 들어와 먹기를 권하매 위공은 그 음식을 먹고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 정 兩公이 극력 구호하였으나 전혀 生途가 없었다. 이때 전실한 宮人이 나타나 태후의 분부라면서 위공의 시수를 덜쳐메고 나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위공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시체를 내어주기를 청하였으나 太妃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趙公이 백운동에 이르니 신양이 진왕에게 약화를 흘려놓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진왕이 소생하자 신양은 그를 趙公에게 부탁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는 宮에 들어가 宮人의 服色으로 太妃를 가탁하여 위공을 얻고 와서 환약으로 구호하여 소생시켰다. 몸이 쾌차해지자 그들은 趙公형제께 하직하고 진왕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한편 華山에서는 서암선생의 생신을 맞아 막내아들의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위공이 진왕과 함께 그곳에 당도했다. 즐거운 상봉의 자리에서 그는 이번의 어려운 일들은 모두 이부인이 방비한 것임을

말하였다. 그날 이들은 노공께 술을 드렸고 노공과 처사 형제는 또 신, 화 두 장군에게도 술을 권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위공은 진왕과 자기 세 아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진처사는 위공이 아직 그 재덕을 다 펴지 못했기에 다시 세상에 나가야 한다면서 수십년 후라야 한가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했다. 그는 또 진왕이 一邦을 진규하여 어진 이름이 나타나고 壽福이 안전하여 세종의 어진 덕을 갚으리라 했다. 세 아이에 대해서도, 인창은 천지정화를 거두어 濟世安民之策을 품고 年之八十에 지위가 千乘이 되리라 했고, 응창은 後漢 太祖가 風塵에 분주하면서도 帝位를 오래 누리지 못한 것을 天帝가 차상하사 이 아이에게 주었다 했고, 현창은 斯文大統을 이을 大賢이 되리라 했다. 노공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흐뭇해 했다.

가을 어느 날 위공이 꿈을 꾸었는데 世宗이 나타나 그의 생전 일을 치하하고는 진왕을 보호하여 그 자손을 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위공은 심사를 정하지 못하고 뒷산에 올라 세상사를 생각하며 長嘆하고 제 갈무후의 出師表를 외었다. 이때 홀연히 구름 위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스스로 제갈무후라고 칭하면서 옛날의 역사적인 사실과 위공이 他日 진명천자를 섬길 일을 말하고 진요히 쓸 데 있으리라 하면서 소매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준 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숙정공주는 위공의 三婦人이 죽은 것으로 알고 황제를 달래어 한옹을 부마로 삼으니 趙公은 천하가 어지러워짐을 보고는 華山에 돌아오고 말았다. 그녀는 또 부귀비를 짐독으로 죽이고 뒤이어 恭帝를 죽인 다음 한옹을 황제로 세우고 자기는 正宮娘娘이 되었으며 부옥대는 婕好가 되고, 태후는 황태후가 되었다.

趙公과 위공은 천하가 어지러워짐을 切齒하다가 신양 화진 등 두 장수와 함께 군졸을 招募하여 京師에 들어가 奸黨을 주멸하고 궐내에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 나라에 하루도 황제가 없어서는 안되기에 사람들은 趙公을 황제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趙公은<sup>5</sup>여

러번 사양하였으나 못사람들의 뜻을 꺾지 못하여 즉위하고 南宋 皇帝라 했다. 위공은 참지정사가 된 후 그 사실을 華山에 통보하고 황후와 진왕 그리고 三婦人을 상경케 했다.

도망쳤던 곽소옥 부옥대 등은 산적을 끼고 結安에 항복한 뒤 변방을 시끄럽게 했다. 이에 위현이 출정하기로 하고 화, 진 두 장수를 先鋒으로 삼았다. 위공이 庭中에서 思親詩를 읊고 있을 때 상이 미행을 나왔다. 상은 위공과 신, 화 등에게 술을 주며 그 출정을 慰籍하고 위공의 三婦人에게 출정의 勝捷時期를 물으니 이부인은 다음 해 사월 경임을 말하였다.

곽소옥 부옥대 등은 도망길에서 한응을 없애고 청용산에 들어가 석용과 음탕하게 지내다가 그와 함께 요국으로 도망하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結安주를 유혹하여 行淫하면서 大國을 치자고 꾀었다. 마침내 結安이 大軍을 이끌고 남하해 왔다.

위원수가 이것을 맞아 신, 화 두 장군으로 적을 치게 하고 城中에 들어가 백성들을 撫恤하였다. 結安의 아들 탈불화는 宋軍과 화친하기를 주장하였으나 소옥은 그를 크게 꾸짖고 싸우기를 고집하였다. 그들은 이웃나라에 援兵을 청하였으나 隣國은 結安이 父子가 不和할 뿐 아니라 宋軍이 너무 神奇하다면서 그 청에 응하지 않았다. 곽소옥은 道姑의 도움을 얻어 術法으로 宋陣을 공격하다가 화진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에 탈불화는 항복함을 통보해왔다.

위현은 그 사실을 상에게 주달하고 명령을 기다렸다. 結安의 항복을 받고 난 다음 班師하라는 命에 따라 위현은 곧 回軍하였다. 이 공로로 위공은 동평장사가 되었고 이부인은 초국부인, 유부인은 신국정의부인, 그리고 정부인은 누국현정부인으로 封해졌다.

사월에 設科하였는데 장원에는 양문홍, 探花에는 소세광이 발탁되었는데, 세광은 武科에도 장원을 하였다. 양문홍은 한림지제교에, 소세광은 한림편수 부총독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곧 소봉을 올려 先山 수호함을

청하여 말미를 얻었다. 위승상이 말미를 얻어 華山에 온 며칠 후 소, 양 두 新來가 도착하였다. 이들을 맞는 兩家와 두 孫婿를 맞는 위부는 환희로 가득하였다.

곽소옥을 처치하여 원수를 갚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怨이 풀리지 않은 진왕은 정상적인 衣食生活을 하지 않았다. 이부인은 늘 그를 설득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꿈에서 부모를 만나 養生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뜻에 대해서 말을 들었다. 꿈 속에서 부모 말을 들은 후 그는 부모를 생각하는 효자가 되었다.

秋七月에 승상 조보가 국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 괴한이 글 한 통을 주고 사라졌다. 그 길봉에는 재상이 홀로 보지 말고 天子 榻下에서 開拆하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예부의 연공, 병부의 양공 등과 함께 闕下에 나갔다. 그 글은 구름 현상과 새 발자국 같아 아무도 해독할 수 없었다. 上은 위현의 妻 이부인이 비상하니 알 것이라 하고 皇后를 통하여 이부인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했다. 바로 그때 위공이 華山에서 돌아왔다. 上은 그에게 그 글을 보였다. 위공은 그것이 雲南과 南越 그리고 交趾 등이 서로 합세하여 兵을 일으키는 일자를 통보한 戰書라 했다. 上이 걱정하였으나 아무도 뜻을 찌는 사람이 없었다. 上이 親征하겠노라 할 때 위공이 自願했다. 上은 기뻐하면서 배개를 높이고 잘 수 있겠다며 만족해 했다. 집에 돌아온 위공은 유부인에게 華山으로 통보해 준 일을 감사하였다. 해학이 세 번 울고 날아감을 본 유부인이 이부인과 상의하여 華山의 위공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운남, 남월, 교지 등이 起兵한 急報가 날아왔다. 上은 위현으로 平南 大元帥를 명하고 조빈으로 副元帥를, 이한승, 정운으로 左右大將을, 신양, 화진으로 左右先鋒을 명해서 出征케 했다. 이들이 수개월 사이에 七戰七勝을 하니 적들은 甲을 벗고 槍을 버려 血心으로 항복하였다.

班師하던 중 出東에 이르니 곳곳이 도적으로 어지러웠다. 그곳 太守

신성은 새로 부임하여 미처 그곳의 饑民을 구휼치 못함을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 위공은 그 사람됨이 忠勤함을 보고 그를 도우려 했다. 그때 신앙은 운향산에 감추어 둔 재물이 있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을 구하도록 했다. 이 일이 있는 후 그들이 서로 通姓名을 하고 보니 신앙과 신성은 사촌간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통에 그들의 父祖들이 뿔뿔이 헤어진 탓으로 서로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만날 기약을 남기고 헤어졌다.

回軍하는 水路에 풍랑이 심하였다. 이에 위元帥는 一封書를 써서 수중에 던져 풍랑을 가라앉히고는 신, 화 두 장수로 하여금 파선 당한 사람들을 구하도록 했다. 이때 남창부의 어사 소세정이 태부인을 모시고 水路에 들었다가 위급한 지경을 만났으나 위공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어 그 은혜를 칭송했다.

朝會 때 위공은 산동지방의 제주자사의 不人을 말하는 한편 신성의 忠勤을 주달하였다. 上은 자사 洪윤을 파직시키고 신성을 그 자리에 陞任하였다.

예부상서 문하전 대학사 연희숙은 正大寬仁할 뿐만 아니라 효성이 지극하였고 부인 석씨 또한 지극한 淑婉이었다. 그런데 그 모친 기부인은 기승상의 무남독녀로 성격이 強暴하여 뜻에 맞지 않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공 부부에게 笞杖을 가하곤 했다. 그래도 그들 부부는 그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모친을 극진히 孝奉하였다. 공의 아들 병윤의 뛰어남을 보게 된 경공이 請婚했을 때 공은 그것을 許하였으나 기부인은 그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사를 반대하였다. 연공은 이왕에 許한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간곡히 말하였으나 그녀는 그때마다 그에게 笞杖을 가했다. 많은 어려움 끝에 景소저를 于歸한 연부에서는 그 용안이 쇠락하고 온순함을 만족해 하였으나 기부인은 종시 기뻐하지 않았다. 景소저는 대소사에 매번 조심하였으나 기부인은 그녀에게 笞杖을 가하곤 했다. 하지만 연공 일가는 아무도 기부인의 극성에

거리까지 않으니 그 사실이 上에게까지 알려져 上은 그들의 효행을 크게 칭찬하였다.

연공의 장녀 화옥은 13세로 그 용모와 동지가 뛰어났다. 형부상서 왕정빈의 次子와 정혼하고 그 사실을 기부인에게 告하자 그녀는 자기의 의사도 묻지 않고 許婚을 하였다고 연상서에게 또 한 차례 重杖을 쳤다. 연소저의 결혼식 때 많은 하객들이 왔었는데 그날 연공의 종계가 기부인의 성격을 말한 것이 빌미가 되어 연공은 또 杖責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연공 일가는 아주 온화하게 그 예식을 마치니 그 광경을 보고 연공의 大孝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 소문은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 다음 해 夏五月, 기부인의 회갑 때에는 연공 부부의 大孝를 보겠노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승상 조보의 息婦 최씨는 화주소저의 뛰어난 것을 보고 기부인에게 請婚하였다. 기부인이 연공에게 그 뜻을 전하자 연공은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일컫고 許婚을 미루자고 하였다. 기부인은 당장 연공에게 笞杖을 가하는 소란을 피웠다. 화주는 어린 마음에 자기 때문에 부친이 杖責을 당함을 보고 한스럽게 생각하여 자기가 지니고 있던 裝刀로 가슴을 찔러 아버지 笞杖을 막으려 했다. 이 소문을 들은 위공은 화주가 진왕의 好逮임을 생각하고 그 뜻을 연공에게 통하였다. 연공은 그 청을 매우 기쁘게 받았으나 모부인을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다.

한편 옥대는 등신량이 준 改容丹을 먹고 변형하여 다시 行計하려고 했다. 그녀는 황상궁의 族親과 사귀어 궁중을 거쳐 위부에까지 잠입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 머물면서 行計하려 하다가 照心鏡에 비춰어 본색이 드러나 그만 잡히고 말았다. 위공이 그 사실을 上에게 주달하자 上은 그녀의 服招를 받은 뒤 진왕의 뜻대로 하게 했다. 진왕은 그녀를 길가에 풀리고 극형으로 다스렸다. 이렇듯 한을 품진 왕은 의복이나 식생활 등을 평상시와 같이 하였고 談論에도 생기를 가지게 되었다.

소부의 진부인이 京師로 온 후 아들의 職品이 높아지며 上寵이 융성

해지고 위소저의 孝奉이 지극하니 소저를 이부인에게 왕래케 하여 정회를 풀며 지내도록 했다.

初冬에 이부인이 아들을 낳고 4,5일 후 유부인이 또 生男하고 며칠 뒤 정부인이 또 아들을 낳으니 모두들 경사를 치하하였다. 그후 유, 정 등 두 부인은 산후가 쾌차하였으나 이부인만은 병이 되어 점점 중해지기만 했다. 탕부인이 前事를 누우치고 힘써 구호하였으나 효험이 없었고 이장군이 御醫를 불렀으나 執症을 하지 못했다. 인창이 斷指를 하여 生血로 구호했으나 그녀는 回生치 못했다. 이때 진왕은 찬물로 목욕하고 땅에 엎디어 이부인의 回蘇를 기원하였다. 이부인은 昏昏中 上天에 가서 부친인 이학사와 모친인 상부인을 만났다. 上帝 앞에서 그녀는 壽限이 다 하였지만 진왕의 지성으로 다시 그 命을 연장케 되었다는 말과 明年이면 유부인의 壽限도 다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때 그녀는 이왕 자기의 命이 다하였으니 그 命을 연장치 말고 유부인의 壽命을 자기 대신 연장해 주도록 간청했다. 上帝는 그 우애로움에 감동이 되어 유부인의 命까지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上帝의 말이 끝나면서 그녀는 눈을 떴다. 유, 정 두 부인과 세 아들이 경황없이 구호하고 있음을 본 그녀는 진왕이 그 자리에 없음을 보고 곧 그를 데려오도록 했다. 그날 밤 이들은 이부인이 玉京에서 瓊液을 마신 것과 그들이 죄가 있어 부모를 弔別하게 되었음을 말했다. 그들은 또 두 娘娘이 진왕의 배우와 凡事를 부탁하던 것도 전하였다. 이부인이 快癒하니 이공과 두 부인들, 탕부인 그리고 신, 화 兩人 등이 하례했고 진왕은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 했다.

위공이 遠地에서 돌아와 이부인의 병환 때 인웅과 진왕이 斷指를 하고 힘겨운 기도를 하는 등 애를 썼음을 듣게 되었다. 그는 新生兒를 보고 기뻐하였으나 진왕의 혼사가 여의치 않음을 아쉬워 했다.

연상서의 아들이 科榜에 참여하여 龍樓의 御香을 쓰이며 上寵이 울연할 무렵 기부인은 화주를 멀리 보내기 싫어서 집안이 단출하고 처가살이 할 만한 호생을 손자사위로 삼고자 했다. 그녀는 심복 비자 금향의

계교를 받아 호家の 聘物을 받고는 연상서를 겁박하여 成婚케 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위부에서는 이부인의 오빠인 이장군으로 하여금 금향을 잡아 저주어 기부인의 손발을 끊게 한 후 上에게 연공의 사정을 아뢰어 賜婚토록 청하였다.

다음날 朝會 때 上은 진왕을 보살핌이 先王의 은혜를 갚는 길이니 맡 가진 사람은 揀擇令에 응하라고 公表했다. 연공이 돌아와 근심스런 빛을 보이자 기부인은 그 연고를 물었다. 연공이 揀擇令을 말하자 그녀는 上을 빙자하여 母命을 어기려 한다고 야단을 쳤다. 연공은 도친 뜻에 따라 揀擇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上이 추궁하면 聘物을 받았노라 하기로 했다.

황후가 揀擇令에 응한 모든 소저들을 접견하였으나 마음에 합당한 소저가 없고 연소저가 응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황후는 연회숙을 엄책하고 연소저를 속히 입현케 했다. 연공이 이 사실을 모친께 아뢰자 그녀는 大怒하였다. 이때 中使가 왔고 이어서 황후의 教旨가 내려져 揀擇令에 불응한 죄를 물었다. 기부인은 아들이 죄를 짓게 됨이 전혀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소상궁에게 화주를 데려가라고 했다.

화주가 입궐하였으나 그녀는 황후께 禮를 올리지 않았다. 까닭을 묻자 그녀는 아버가 죄인이라서 자기도 죄인이기에 禮를 펼 수 없노라고 했다. 황후는 그 뜻을 아름답게 여기고 아버의 죄가 중하나 연소저의 정경을 보아 赦하니 의복을 고치고 殿에 오르라고 했다. 그러나 연소저는 아버가 죄인이라 할미와 어미가 모두 席藁待罪 중인데 자기만이 殿에 오를 수는 없노라고 했다. 화주를 별궁으로 보낸 후에 황후는 上을 대하여 연소저가 진짓 진왕의 쌍임을 말하고 기부인의 피박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연공 부녀를 삼사일간 더 궁내에 잡아두기로 했다. 上은 또 신하들이 인대를 바라도 허락치 않고 연상서의 소식을 일체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기부인은 자신의 죄과로 인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크게 뉘우쳤다. 그녀는 사나운 자기 목숨을 끊어서 豊都에 넣고 어진

아들의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上是 연공에게 침금과 酒食을 주시며 款待하면서도 황후는 기부인에게 연공의 죄가 중하나 딸의 효성을 보아 그 죄를 赦하나니 다시는 이렇듯 逆命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부인은 백배 사죄하고 上的 恩愛에 감격하며 손녀 보냄을 지원치 않겠다고 했다.

연공이 풀려 돌아오자 기부인은 지난 날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앞으로는 결코 그러한 파격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연소저가 돌아올 때 황후는 유모 시아 등 여섯 궁녀를 보내어 후일 成婚하게 되면 진왕궁에 있도록 했다.

正月 十五日이吉日이었다. 식이 끝나고 진왕과 妃는 宗廟에 參拜한 후 위승상과 三婦人에게 禮를 올렸다. 그후 왕은 內殿에서 妃를 만나 위승상을 부모같이 禮待하고 공경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부총재 문영자 태학사 철영진은 부인 심씨와의 사이에 三子一女를 두었다. 총부와 차부가 다 窈窕하고 현혜하여 족히 家聲을 잇고 門戶를 빛낼 만하였다. 女兒 초주가 방년 八세에 위부 인창의 聘禮를 받게 되었다.

이부인이 부친 이학사의 忌祀를 지내고 며칠 그곳에 머물렀다. 위부의 인창, 현창, 웅창 등 三公자가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의 비명을 듣게 되었다. 어떤 벼슬아치의 아들이 여인을 겁탈하려다가 듣지 않음에 매질을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웅창은 그 男兒를 한바탕 두들기고 질책하였다. 그것을 본 형 인창은 사람의 위급함을 구하는 것이 의협심이 있어 좋기는 하나 몸이 土類임에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부모께 請罪하기로 했다. 그 사연을 들은 승상은 訓子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笞杖으로 다스렸다. 승상이 그들을 막 용서하려는 참에 한 여인이 나타나 자기 아들이 맞아서 다 죽게 되었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발악했다. 승상은 웅창에게 다시 笞杖을 가하였으나 그 여인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다. 그때 개봉부

윤이 公事로 그곳에 왔다가 그 사실을 듣고는 對質하겠다면서 모두 잡아들였다.

위부에서 三婦人과 진왕이 웅창의 장치에 약을 바르며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상부인이 從子를 보내었다. 그 驪子의 여인은 신주절도사 김환의 부빈이며 그 아들 민은 경박패려한 위인이라는 것과 그 美人은 合血한 결과 상공의 庶妹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다.

웅창의 용력과 의지를 기록히 여긴 上은 太醫를 보내어 그들을 調護케 하고 그 병세가 하리거든 入見케 하라고 했다. 웅창을 보게 된 上은 오래지 않아 웅창이 百萬雄兵을 거느려 천하를 횡행하리라 했다.

위공의 생신이 되었다. 華山에 있는 부모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여의치 못했다. 친척 친구들이 구름처럼 모여 그가 아들 잘 낳음을 부러워했고 철공은 사위가 될 인창의 손을 잡고 자랑하니 모두들 그가 사위 잘 붙을 치하했다. 이들은 또 위공의 諸子에게 結紉할 것을 원했으나 위공은 그들이 아직 齒髮이 마르지 않음을 일러 후일 잘 자란 뒤에 의논할 것을 제의했다.

다음날 황후낭낭이 채단과 술을 주시고 두 곳 진진의 好緣을 말하며 위공께 華山에 통하라 했다. 공부상서 영환의 딸을 원창의 부실로 맞고 호부시랑 두균의 아들에게 서암공의 차녀로 結緣케 하자는 것이었다. 위공은 그것이 마음에 합당치 않았으나 말미를 청하여 華山으로 떠났다.

위공이 없는 틈을 타서 기부인은 연비를 찾았다. 그녀는 진왕궁의 모든 것이 珍貴했고 또 황홀했다. 그녀는 敎坊의 女樂과 춤을 듣고 보면서 지난 날 자신이 狂悖했던 것을 뉘우치고 또 용서를 빌었다.

위승상이 華山에 이르러 姪兒들의 혼사를 말하자 모두 不悅하였으나 皇后낭낭의 뜻에 응하기로 했다. 위공은 서암공과 총계공을 뵈시고 연, 두 등이 사치 거오함을 걱정하며 처음부터 엄격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 한림에게는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 바에 한 여인을 可御치 못해서는 안된다고 슬기롭게 다스리기를 당부했다.

위공이 華山을 떠나 上계 服命하고 內殿에 들어가 兩家의 혼인 完定함을 아뢰었다.

한편 빙낭은 진왕궁의 호사를 탐하게 되어 그 아비로 장모인 기부인을 설득하여 진왕의 부빈으로 가게 해달라고 보냈다. 가생이 기부인에게 나아가 그런 사유를 말하자 그녀는 그것을 일축해 버렸다. 빙낭은 외조모인 기부인이 전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 화가 난 가생은 장모에게 욕을 하면서 딸을 돌려 보낼 것이니 서랑을 들보아 改適토록 하라 하고는 나가버렸다.

빙낭은 채선으로 하여금 진왕비가 기부인을 초청하도록 시켰다. 기부인이 진왕궁에 갔을 때 채선은 그곳에 妖穢之物을 埋置하였고 진왕비가 失攝하여 湯藥을 다릴 때 그 약에 置毒하였다. 기부인이 예측하고 오다가 빙낭과 채선이 연비를 속하려는 私語를 듣게 되었다. 기부인은 이들을 잡아 縊殺케 하려 하였으나 남편인 가생이 끼어들어 그들을 모두 놓아주고 말았다.

채선은 가, 호 양인과 함께 새벽을 타 도망하려 하였으나 잡혀 투옥되었다. 가빙낭은 그 어머니가 賢哲하니 잘 다스릴 것이라 하고 용서하였으나 가창은 流配하고 채선 등은 베어 후환이 없게 하였다.

春二月에 한림 왕창이 연가와 혼인 후 叔堂께 뵈니 위공은 부빈이 원군게 처음 뵈는 禮가 엄함과 부빈이 원군을 넘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엄하게 경계하였다. 그리고 완창에게는 낭낭의 뜻을 받들어 잘 齊家토록 지시했다. 며칠 후 위공은 연소저의 服色이 지나치게 사치함을 보고 크게 꾸짖었다. 연소저는 몹시 못마땅하였으나 小不忍則 亂大謀라는 봉선의 충고를 듣고 참기로 했다.

서랑부인 소씨가 成婚 八年만에 順產生子하였다. 승상을 비롯하여 三婦人の 환희함이 비길 데 없고 진부인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무렵 소서랑 부인 위소저가 심기 불편하더니 또한 生男하니 소서랑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양소저가 잉태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 봉선은 업상서 부인 초씨를 찾아가 외부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금은을 마련하여 병운산 청허관 등 운대사를 찾았다. 그에게서 下胎할 약과 다른 독약을 구한 그녀는 양소저의 婢子 설난을 매수하여 양부인의 차에 그 약을 타게 했으나 사상궁의 총명으로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다.

朝會가 끝날 무렵 형주자사의 急告가 이르렀다. 甌越 사이에 큰 도적이 일어나 그 형세가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上은 위승상을 南征大元帥 진유초토사에 命하여 出征케 했고 병부시랑 소세광이 순무안녕사로 함께 따르게 했다.

위원수는 賊徒들을 討伐하면서 양민은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니 그 소문이 퍼져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위원수가 화, 진 兩將에게 치게 하니 鬣首 주통은 賊을 달고 나오지 않았다. 그가 火攻策을 쓰자 주통은 細路로 도주하다가 소세광에게 잡히고 말았다.

소세광이 지방을 순무하다가 전약수의 역울함을 알게 되었다. 소어사는 전생이 大孝임을 기리는 한편 간악한 계모를 다스리고 그녀에게 현혹된 전생의 부친을 타일렀다. 소어사는 또 무광현의 지현인 김신이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뿌리뽑았으며 신장군의 도움을 받아 도화산의 賊徒를 소탕하고 임수라는 건장한 청년을 얻었다. 이 임수는 신장군의 모친 임씨의 親姪임이 밝혀졌다.

위원수는 소어사의 복명을 받고 임수를 中軍에 비무르게 하는 한편 전약수의 大孝를 듣고 감동하였다. 위공이 진숙을 불러 개유하자 그는 지난 날의 자기 과오를 뉘우치고 아들의 효성을 꺼달게 되었다. 그는 또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있던 염녀의 자식이 舍血한 결과 우섭의 아들임을 확인하고는 염녀에 대한 지난 날의 애착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아들과 화소저의 孝奉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위원수가 回軍하였을 때 양소저는 설난이 作孽함에 대한 죄를 빌었다. 설난은 벽을 뚫고 도망하여 영소저 본가로 가서 초씨의 비호 밑에서 지

내고 있었다.

이부인이 양소저의 시아를 한 사람 구하고 있을 때 소향이란 아이가 나타났다. 이 아이는 설난이 고른 영소저 본가의 비자였으나 村家의 아이처럼 꾸며져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위어사가 그 형과 함께 勤親 소유를 얻어 華山으로 떠나자 초씨는 영소저의 歸寧을 청하였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설난과 다시 양소저를 害할 계책을 의논했다. 영소저는 비자로 하여금 두 차례나 置毒케 하였으나 번번이 그릇을 얻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소저가 叔父인 양처사 府中에 간다 함을 듣고 영소저는 봉선을 청허관에 보내어 부작과 妖穢之物을 가지고 와서 양소저의 침실 가에 埋置케 하였다.

병부상서 양계홍의 二子一女 중 딸인 혜주가 뛰어나다. 양상서는 위승상의 아들인 웅창에게 뜻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조승상의 며느리인 최씨는 한 때 연소저를 생각하여 기부인에게 매달렸다가 실패하고 이번에는 양소저에게 뜻을 두게 되었다. 양처사의 母夫人 사씨가 조보의 부친과 結爲男妹한 것을 빌미로 그녀는 양처사의 회첩 가십낭을 금백으로 회유하여 혼인하기를 서둘렀다. 양상서가 딸의 配偶로 위웅창을 언급하자 양처사도 그 뜻을 따르려 했다. 가십낭은 양처사에게 改心丹을 먹이고 變心케 한 뒤 최씨를 중매로 세웠다. 최씨는 조승상을 돌우어 양상서에게 請婚케 하였으나 그는 일언지하에 그 請婚을 물리쳤다. 화가 난 최씨가 가십낭에게 無信함을 욕하자 십낭은 양상서를 害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양상서가 위가와 定婚코자 父親의 뜻을 물었더니 처사는 전과는 달리 크게 역정을 내었다. 그후 여러 차례 부친의 다짐이 있어서 양상서는 그 뜻에 따라 조가와 結緣하려고 하였으나 조승상은 양소저가 이미 위공자와 定婚한 사실을 말하고 請婚을 거두고 말았다. 최씨가 가너를 추궁하자 가너는 또 양상서를 헐뜯어 처사는 마침내 양상서에게 笞杖을 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도 양상서는 부친의 심기를 편

케 하고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상서의 아들 딸들은 자진해서 부친 대신에笞杖을 맞았으나 양상서는 여러 차례의笞杖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다. 왕, 상 兩公은 상太醫를 불렀고 子女들은 손을 잘라 生血로 구호하였으나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가 辭職을 원했을 때 上은 그 벼슬을 바꾸지 않고 잘 조섭토록 했다.

양처사의 身氣가 최악해짐을 본 상서는 상태의게 부친의 진맥을 청했다. 그러나 가너는 처사가 진맥을 받지 않도록 종용하여 자신의 계교를 은폐했다.

양소저가 生男하자 三婦人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喜悅하고 賀禮하였으나 영시는 앙양했다. 사상공과 심유량은 양소저의 신변에 화가 미칠까 걱정하여 심밀히 경계하였으나 취선은 틈을 타 양소저의 갱반에 치독을 하였다. 그러나 양소저는 다른 상으로 식사하였으므로 무시했다. 취선은 어렵게 기회를 엿보아 置毒하였는데도 양소저가 如常하매 더 이상 수를 쓸 수가 없어 영부 본가로 돌아가고 말았다. 초씨는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였으나 다른 마디가 없어서 주저않고 말았다.

양상서가 기상을 회복하였다. 그는 老大人의 氣威가 약해짐을 근심하고 소부인으로 하여금 모든 음식을 親執하게 하였는데 형소저 또한 그림자처럼 도우니 가너는 다른 計略을 꾸미게 되었다. 가너와 최씨는 건당이란 자로 하여금 양소저를 겁탈해 오도록 했다. 그러나 건당에게 사교가 생겨 여의치 않으며 그들은 난매의 남편인 방승으로 그 役을 대행케 했으나 실패했다.

하북절도사가 瘳狀을 올렸다. 그곳 인심이 흉흉하니 순무사를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조승상이 양계홍을 추천하매 上은 그것을 允許했다. 양상서가 떠난 뒤 설매가 처사에게 부정단을 복용케 했으므로 처사는 차차 기운이 돌기 시작였다. 그는 집을 떠난 아들 생각도 하게 되었고 孫兒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또 그는 전자의 獄事와 녀의 초사를 보고 나서는 자기도 가너의 요언에 현혹된 실을 후회했다.

가녀는 양처사의 신기가 맑아짐이 불안하였고 또 최씨에게 맞은 杖遊가 낫지 않자 이 김에 아주 최씨까지 없앨 것을 결심하였다. 그녀는 환방, 김민 등 力士에게 그런 내용의 글을 보냈다. 설매는 그 일들을 말로만 전하고 그 편지는 위부의 이부인에게 두고 갔다.

가녀가 무례함을 알게 된 처사는 그녀는 杖責하고 가두어 두었다. 가녀가 부린 적도들이 양상서의 집에 쳐들어 왔을 때 그들의 대부분은 미리 준비한 지합에 빠지고 양처사와 공자를 害하려던 환방은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소년장수 비운에게 다리를 잘리고 말았다.

양처사 집에 禍亂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딸들이 서둘러 돌아왔다. 부친이 본정신으로 돌아왔음을 본 그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양처사는 帝王들이 간신배에게 傾倒됨을 타하였던 자신이 일개 妖妾에게 현혹되었음을 크게 뉘우치고 아들 딸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게 사과했다.

영부에서 영소저의 귀령을 청하며 이부인은 그것을 흔쾌히 허락하였다. 그리고 정부인으로 하여금 양, 영 두 소저의 장래를 점치게 했다. 양소저는 처음에 곤하나 나중에 吉할 卦요 영소저는 혼이 풍도에 들 卦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부인은 영소저를 반드시 회과자선케 하겠다고 했다.

영소저가 귀령한 뒤 황태후는 勅命으로 양소저의 입궐을 命하였다. 태후는 양소저가 원국시를 쓴 까닭을 추궁했다. 그녀는 죽을지언정 그 글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영소저와 그 비자 봉선은 양소저가 영소저를 구타할 때 떨어뜨린 것이라 했으나 양소저의 비자 사경난은 양소저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죄의 유무를 다룰 때 설난이 擊鼓를 했다. 그녀는 영소저가 行計할 때 쓴 書札을 증거물로 내놓았다. 봉선은 그것을 꾸민 것이라 했으나 이들 모두를 대질한 결과 설난의 말이 옳음이 확인되었다. 태황후는 설난의 충성심을 크게 찬탄하는 한편 조부인을 엄하게 꾸짖었다.

양소저가 간절히 청하며 태황후는 영소저를 용서하였다. 이러한 말을

들은 상은 양소저에게 순정현의부인이란 작호를 下賜하고 설난에게는 충의부인이란 직함을 주는 한편 그 家夫에게도 벼슬을 주었다.

이부시랑 설공이 二子一女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순냥은 전처 장씨 소생이고 순경과 채주소저는 여씨의 소생이었다. 순냥은 우둔하였고 순경과 채주는 영특하였다.

순냥은 무뢰한들과 사귀며 그들의 꾀에 빠져 여동생 채주를 好色하는 부자인 홍혁에게 넘겨 주기로 했다. 여씨가 그것을 반대하자 그들은 채주를 겁탈해 가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알게 된 계재가 巡撫中이던 양순무에게 통하여 거사하는 날 그 일당을 잡게 되었다. 이 사건을 처결한 뒤 양순무는 친구였던 설공의 집을 찾았다. 그가 순경을 격려하자 순냥은 순경이 畵變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원망했다. 그래서 여부인은 그가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동생을 채찍질할 것을 명했다. 한참동안 동생을 매질하던 그는 갑자기 몸을 떨며 혼절하고 말았다. 여부인과 순경은 家廟에 가서 순냥의 회생을 빌었다. 비몽사몽간에 순냥은 부친 설시랑에게 불리어 가서 엄한 꾸지람을 들었고 母夫人 장씨에게서 자애로운 훈계 또한 듣게 되었다. 그는 仙茶를 얻어 마시고 정신을 차렸으며 회생한 뒤로 자기의 지난 날의 과오를 크게 뉘우치게 되었다.

위부의 이부인은 영소저를 불렀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시가에 돌아왔으나 신성 혼정에 나가지는 못했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여 양소저를 찢러 죽이겠노라 했다. 그녀는 어떤 神將에게 붙들려 귀문각에 가게 되었다. 그곳 염왕은 그녀를 엄하게 꾸짖고는 양소저와 설난의 간청이 있어 용서하노라 했다. 이런 일을 겪은 그녀는 지난 날을 회과하게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죄인으로 자처하고 양소저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었다. 양소저는 그녀를 너그럽게 관위하고 三叔母를 본받아 정답게 지내기를 청했다.

영소저가 회과하고 또 이부인 앞에 나아가 사죄했다. 그녀의 회과를

기다리던 이부인은 매우 기뻐하고 조용히 타일렀다. 영소저는 위승상 앞에도 나아가 석고대죄를 하려고 했으나 이부인이 그것을 만류했다.

華山에서 풍부인이 上京하여 헤어져 지냈던 그간의 회포를 풀며 즐겼다. 新年 正月 하순에 두생과의 혼사 후 위승상은 인창 응창 그리고 현창 등 三子の 혼인도 이루었다. 승상은 말미를 얻어 三子와 함께 華山으로 떠났다.

大宋이 창업 후 오래도록 태평스런 세월이 흘렀다. 乾德 九年에 나라에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그것을 자축하였다. 滿朝百官과 內外 命婦들도 이 잔치에 참석케 했다. 그 자리에서 태후는 양소저를 칭찬하고 영소저에게는 원비를 좇아 정답게 지내기를 권유했다.

영상서 부인 초씨가 이부인에게 지난 날을 사죄하였을 때 양소저는 그것이 도시 액운이라며 관위했다. 그녀가 지위와 연령이 현격하므로 양소저는 叔母의 情으로 보살펴 줄 것을 원하는 등 그들의 정은 도타워졌다.

진왕이 14세가 되던 夏四月 위공은 진왕의 氣骨이 장성하고 또 紅繩이 설가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택일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나 진왕은 그것을 즐거워 하지 않았다. 위공은 그에게 부부의 정이 하늘 뜻임을 말하고 또 연비에게도 內助의 뜻을 일렀다.

연비가 本府에 돌아왔을 때 집안 사람들은 지난번 歸寧했을 때까지 있던 앵혈이 없어짐을 보고는 모두들 그들 부부의 화합을 기뻐하였다. 특히 태부인은 그것을 기뻐하였다.

석부인이 女兒를 낳고 이어 또 男兒를 순산하는 雙胎의 경사가 있을 후 참정공이 相位에 오르고 시랑이 또한 禮部尙書로 陞任하였다. 이렇듯 연부에 경사가 겹치자 진왕비는 수개월 그곳에 머물다가 本宮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잉태 四個月이 되었으나 석소저를 빼고는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조승상의 자부 최씨는 연부의 여인이 뛰어남을 듣고는 그녀를 정옥의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했다. 정옥도 그것을 아쉬워 하면서 祖父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렇듯 불평하는 母子의 말을 듣게 된 조공은, 아들은 齊家하지 못한 빌미요, 손자는 行止가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杖責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이들 母子는 더욱 분노하였다.

이때 산방이란 者가 정옥에게 설가의 화란과 설소저의 뛰어난을 귀뜸하였다. 그 말에 크게 고무된 母는 그곳과 成婚하게 되면 크게 은혜를 갚겠노라 약속했다.

장확이라는 者가 설순냥 앞에 나타나 오래 떨어져 살던 친척이라 잘 모르리라며 접근했다. 그는 순냥에게 酒肴를 곁들여 厚待하다가 은냥과 보물을 주기도 했다. 그는 조승상家の 이야기를 장황히 늘어 놓고는 승상의 손자인 정옥의 이야기로 화제를 이끌었다. 설소저가 정옥과 結婚하여 榮華를 누리며 어떻게느냐는 것이었다. 순냥은 동생이 지난번 家變을 겪고 하종을 잃다가 醫者가 침을 잘못 놓아 그만 앓은병이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장확은 그 眞假를 몰라 우선 그에게 벼슬을 주게 하여 그들을 京師로 끌어올린 뒤 그것을 확인하려 했다.

天下가 태평하더니 曠畝가 反旗를 들었다. 조윤은 조그만 도적에 큰 병을 보낼 수 없다 했고, 위공과 연공은 그 勢가 심상치 않을 것이므로 애당초 智謀있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上은 위공을 平北大元帥로 임명하여 出征케 했다. 이때 위공은 자기가 出征하겠지만 上의 親征이 바람직하다고 진언했다. 이에 上은 진왕에게 京師를 맡기고 떠났다.

위공은 先鋒이 되어 아홉번 싸워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그 뒤를 따르던 上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敵將이 기세있게 달려왔으므로 本軍은 한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때 어떤 두 소년이 그곳에 나타나 敵將의 목을 쳤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흐르는 화살이 御轡를 침입했다. 그곳을 지키던 예부상서 연명윤은 자신의 몸으로 그 화살을 막아 용체

를 온전하게 했고 연상서가 쓰러진 후 연명운의 家僮 왕성범도 제 몸을 방패로 화살 세 개를 맞으면서 용체를 보호했다. 위기를 모면한 上은 용감한 少年 장수에 대해 불었다. 신앙이 上 앞에 나타나 前方에서 싸우노라 매를 놓쳐 上을 위협케 한 것을 사죄하고 그 두 장수는 위원수의 아들 인창, 응창 형제임을 말하였다.

진왕이 行在할 때 이부인은 인창, 응창 형제를 따르게 했고 또 비상 구급약을 준비하여 보냈다. 이들이 행하다가 싸움에 가담하게 되어 왕장군을 구하고 또 준비한 약으로 연상서와 성범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원수는 화진 입수 조찬 등으로 東西北 三門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南門을 攻略했다. 꺾눌은 당할 수 없어 北門으로 달아났다. 그는 百里許까지 가도록 追擊이 없음을 확인하고 숨을 돌리며 쉬다가 그곳에 埋伏한 신앙에게 생포되고 말았다. 上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고 진왕은 먼저 京師로 떠났다. 중도에서 진왕은 그곳에서 동쪽으로 五里쯤 가서 급한 사람을 구하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 손잡은 그곳 설씨가 몹시 위급하다고 報하였다. 진왕은 兵을 지휘하여 그곳에 갔다.

아들의 슬기로 장확을 물리치기는 했으나 설시랑 부인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소저가 產後 몸이 불편하여 순경이 대신 쟁반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엎지르고 말았다. 몸을 숨기고 지내던 설소저가 그를 도우려고 나왔다가 췌씨가 보낸 비자 난심의 눈에 띄었다. 설소저의 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 정옥은 산방을 불렀고 그 계획에 따라 그들은 설소저를 拉致하기로 했다.

그들은 夜半에 설가에 突入하였고 설소저를 挾持하려 했다. 설소저는 그들이 자기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自刎하겠다고 하고 모친께 하직 인사를 하고 을 터이니 轎子를 대령하라고 했다. 그녀가 하직 인사를 하고 막 교자에 오르려는데 진왕이 그곳에 당도하였다. 위기 일발에서 살아난 설생 兄弟는 그들의 구원에 감사하였고 그 母夫人 또한 기뻐하며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였다. 술과 안주가 진미는 아니었으나 그들의

정은 도타왔다. 진왕은 그들의 情狀을 알고는 上京하기를 권했다. 그들이 빈한하여 그걸 여유가 없으며 진왕은 진실한 家丁과 路資를 주어 그들의 上京을 도왔다.

설家가 京師에 오자 진왕은 그곳에 내왕하면서 지냈다. 그럴수록 최씨부인과 정옥은 설소저를 奪取하지 못하였음을 분해 하였다.

北伐에서 還京한 上은 크게 設宴하고 신하들의 功을 치하였다. 上은 위공을 封王하려 했으나 위공은 그것을 固辭했다. 上은 인창을 직배 중서사인에, 웅창을 병부시랑 어영도지휘사에 임명하였다.

上은 두황후 낭낭이 現夢한 夢兆를 말하고 설소저를 진왕의 부빈으로 맞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또 그는 연상서가 몸으로 자기를 보호해 준 은혜에 답하여 연부에 設宴토록 하고 금은을 賜送토록 했다. 上은 그 잔치에 中使를 보내어 연공부인의 태교의 공을 치하여 그녀를 위국부인에 封하고 연상서를 이부상서 겸 홍문관 태학사 봉정능주에 封하였다.

연부의 잔치에서 돌아온 진왕비는 진왕의 吉服을 준비하였다. 그 광경을 본 진왕이 부빈 맞이에 무얼 그리 정성스러우느냐 묻자 그녀는 위부의 三母夫人을 보지 못하느냐고 하여 진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왕의 成禮가 끝나자 위상국은 三婦人과 더불어 신부를 보고 만족해 했고 진왕비도 또한 흔쾌히 相禮를 하여 모든 사람들이 喜幸했다. 上이 연비를 정숙비라 하고 설소저를 부빈이라 하라고 하니 위, 연, 설 三府에서 모두들 그 뜻에 감격했다.

北伐 平定 후 上은 慶科를 베풀었다. 用人을 잘못된 탓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조상국이 그곳에 갔다가 壯元한 양공자를 보고는 손자인 정옥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정옥의 病勢를 물었을 때 최씨는 아직 증세에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설소저 劫奪을 위한 꿈을 버리지 않고 지냈다.

위상국의 원비 이부인은 재앙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설난이란 비자를 부려서 최씨의 계교를 봉쇄하

려 했다. 설난은 은교를 사귀어 심복으로 삼았고 은교는 또 취빙을 달래어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은교는 취빙에게서 최씨가 上寵을 얻고 있는 미염에게 보낸 편지를 얻어 보고 그녀가 여러가지 보배를 보내면서 미염에게 청탁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

미염은 위현이 진왕을 끼고 뜻을 깊은 곳에 둔다고 모함했다. 上이 股肱之臣을 모함하지 말라고 타일렀으나 그녀는 上을 위한 말이라며 말대꾸를 하였다. 화가 난 上은 즉석에서 그녀를 斬하고 말았다. 그때 미양궁 시위생궁 오설난이 은교, 취빙 등을 잡아 대령했다. 그녀는 그동안 최씨가 미염에게 보낸 글을 증거로 그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했다.

담을 넘어 上을 해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怪漢이 달아나면서 진왕전하와 위상국의 분부라고 거짓 발설을 했다. 그자를 미처 잡지 못했는데 위공의 家僮 비운이 그놈의 다리를 베었고 또 위시랑과 양한림 두 사람의 계교로 그를 잡게 되었다. 그는 역시 위공이 시킨 일이라 했다.

문초가 엄하자 그놈은 최씨의 부림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上은 조승상을 불러 엄하게 꾸짖고 최씨를 縲殺토록 했다.

진왕과 위상국은 上 앞에 나아가 請罪하였다. 모든 것이 밝혀진 뒤라 上은 그들의 罪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위상국은 萬言疏를 올려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上은 지난날 위공과 結義兄弟하여 백성을 돕자던 말을 꺼내면서 위공이 없는데 누구와 함께 天子의 자리를 지키겠느냐며 政事를 폐하고 말았다. 위공은 하는 수 없이 上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사죄하였다.

세종황제와 두당낭이 위공의 꿈에 현성하여 어린 아들을 잘 보살펴 준 것을 감사하고 이제 모든 액운이 끝났으니 자손들과 영화롭게 지내게 되리라 했다.

上이 淸윤을 파하고 大赦令을 내리자 연왕이 하례차 京師에 왔다. 그는 위상국 위시랑 등과 情을 나누었고 그 정표로 쌍봉 大劍을 사인 위인창에게 선사했다. 그는 또 자기 딸 인의공주를 사인의 부빈으로 청하

여 위공의 허락을 받아 팔쇠를 빙물로 받고 돌아갔다.

위공은 자기 심혼이 황황하자 母夫人의 환후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말미를 얻어 사인을 데리고 華山으로 떠났다. 이, 정, 유 三婦人과 풍, 조 등 二婦人 그리고 소, 양 등 소저들도 그들을 뒤따랐다. 生途가 없을 것으로 알았던 母夫人은 정부인이 준비한 약의 효험을 얻어 快差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무렵 中使가 이르러 위공의 빠른 上京을 通報했다. 老公 부부는 忠孝가 양립할 수 없으니 忠을 위해 떠나라고 했다.

新正이 되었다. 연왕은 자기가 위급하다고 하면서 위사인을 보내주기를 청했다. 그무렵 연왕은 母妃 방씨의 강박에 시달려 몹시 어려움을 겪다가 위사인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연국왕 次妃 강씨는 '어린 세자 계성을 즉위케 했으나 母妃 방씨가 新王을 害하려 하매 왕비는 新王이 죽었다 하고는 장례를 지낸 뒤 방씨를 즉위토록 했다. 즉위한 방씨가 인의공주를 죽이려 할 때 연왕이 왕비 강씨에게 현몽하였다. 그는 위부의 이부인이 한 여인을 보낼테니 그녀의 지시를 따르도록 일렀다. 과연 위부에서 한 여인이 왔을 때 강비는 잠시 주저하였으나 여러가지 믿을 만한 근거를 확인하고는 공주를 맡기로 했다.

방씨는 즉위 후 政事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綱常을 어기는 행동도 하였다. 연국왕 正妃이던 文씨의 부친인 문정은 황제께 上表하여 연국 방씨의 죄를 다스리도록 청하였다. 上은 문정을 大元帥에 임명한 후 위인창, 웅창 등을 대동케 하여 연국을 정벌하도록 했다.

방씨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연국 장수 설항은 거짓 敗하여 文元帥에게 생포되어 연국의 여러가지 사정을 말하였다. 그는 敵陣에서 도망쳐 돌아온 것 처럼 꾸며서 다시 싸우는 척하다가 그곳 城門을 열어 주었다. 적을 무찌른 文元帥는 강비를 맞아 세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良臣들을 불러 國政을 보살피게 하니 연국은 다시 太平을 되찾았다.

先是에 인의공주는 방씨의 해침을 피하여 깊은 암자에 들어갔다가 친

만 뜻밖에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母妃 문씨를 만나게 되었다. 母妃는 방씨가 그녀를 물에 밀어 넣었으나 거북의 등에 얹히어 요행 살아나게 되었다고 했다. 문원수가 연국을 평정하자 이들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위인창과 인의공주의 혼사는 연왕의 三年喪이 지난 후 치르기로 했다.

지난번 위시랑에게 구원을 받은 왕소저는 그윽한 암자에 머물면서 京師로부터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한 배의 도적에게 급습을 받은 그녀는 그 화를 피하여 뒷산에 있는 岩穴에서 지내다가 한 異僧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동쪽으로 계속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리라 했다. 동쪽으로 가다가 그녀는 한 老姑를 만났다. 그녀가 老姑에게 도움을 청하매 그는 서슴없이 그 청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까닭을 물으니 老姑는 오늘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후히 대접하면 큰 이로움이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노라고 했다. 老姑는 여섯 살 되는 한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부친이 주시랑이고 모친이 화부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왕소저는 자신의 사정도 말하고 그 아이의 부모도 찾아주기로 했다.

老姑의 아들인 여무적의 동료 중에 후삼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왕소저가 여자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왕소저는 老姑의 아들을 京師의 이장군에게 보내어 자신의 거처를 알리려고 했다. 후삼은 여무적이 京師에 간 줄로 알고 그 집에 들이닥쳤다가 무적과 마주치게 되었다. 후삼은 무적에게 혼이 났으나 후에 다시 그 집을 습격하려다가 그 주변 도적들을 소탕하던 신장군의 휘하 임수에게 잡혔다. 왕소저는 신장군의 도움으로 이장군의 아들 이생과 만나게 되었다.

주시랑이 부친 영정을 모시고 고향으로 가는 중에 도적을 만나 딸을 잃게 되었다. 돌아와서도 그는 그 사실을 깊이 숨기고 지냈다. 어느 날 위공이 그를 만나 이장군이 생질을 찾은 내력을 말하고 그의 딸에 대하여 언급하자 그는 딸을 잃게 된 사연을 토로하였다. 위공이 그 딸을 데

리고 와서 서로 보게 하니 그는 그 아이가 자기 딸임을 확인했다 뒤에 위공이 아들 연창으로 구혼하자 그는 그것을 응낙하였다.

두가의 계모 김씨는 명주소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핑계를 만들어 난타하는 등 지나친 짓을 했다. 두생이 모친의 지나침을 諫하다가 그도 또한 笞杖을 맞았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모친의 허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문은 태낭낭에게까지 들리어 태낭낭은 진상궁을 보내어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럴수록 김씨는 명주소저가 미워져 마침내 그녀를 없애기로 決心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婢子 두매의 계교를 받아 조황으로 하여금 왕우봉을 끌어들이어 소저를 害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엿들은 초운은 그것을 위부에 알렸다. 위부에서는 왕우봉을 타일러 孀婦와 두매 등을 없애고 조황까지도 처치케 했다. 그후 위부에서는 術法을 부리는 사람을 구하여 김씨에게 孝子 孝婦의 안면을 보다 목숨만은 살리노니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케 하고 만일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한 칼에 버히리라고 했다. 김씨도 깨달은 바 있어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 석부 명주소저를 위로하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뉘우치게끔 되었다. 오래지 않아 두생이 登科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니 집안이 화목하였다.

설공자 순경이 조소저를 맞고 科甲에 고등하여 벼슬이 청현해졌고 순양이 후덕공근하여 양참정의 발친을 받아 공부원외랑을 거쳐 태수지부에 이르게 되었다.

위공의 四子 성창이 화소저와 후궁 조씨의 딸로 左右婦人을 맞았고 위사인이 연국의 인의공주를 맞는가 하면 세창 명창 등도 成婚하기에 이르렀다.

상은 위공으로 하여금 華山の 노부모를 뵈시게 하고 인창, 응창, 성창 등은 京師에 머물게 하여 자신을 돕게 했다. 진왕이 위공을 따라가기를 원하자 상은 이를 허락하였다. 위공은 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華山에 돌아가 부모형제와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